

中央藥大 同門會報

The Alumni News of the Chungang University College of Pharmacy

2019 | Summer
vol. 44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http://www.caupharm.or.kr>



17



31



24



20



28



14



36

Contents

중앙약대 동문회보 2019년 여름호

시론

- 3 One(원) 팀 구성을 지원하며...
이해룡(28회) 부회장

인사말

- 5 1회부터 63회까지
한 몸처럼 어우러지는 동문회
최광훈(22회) 동문회장
- 7 다양한 교류의 장 확대로
확고한 유대감 공유하는 여동문회 구축
양덕숙(28회) 여동문회장
- 9 제22대 회장단

동문회소식

- 11 화보
- 14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학위수여식
- 17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제62차 정기총회
- 20 제2회 약학포럼 국내 제약 및
바이오 의약품의 성공전략을 마무리하며
- 24 2019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 골프축제
손병로(29회) 준비위원장

동기회소식

- 28 동문들의 끈끈한 정과 우정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강승조(3회) 동기회장

별난동문이야기

- 30 특허외길,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도전정신으로
강춘원(29회) 특허심판원 심판장

인터뷰

- 33 약사3대의 꿈 "나누는 삶"
편집위원회

38 만평

- 39 회원동정
- 40 회비내역
- 42 장학기금
- 43 편집후기

One(원) 팀 구성을 기원하며...

2019년 5월 온 국민을 설레게 했던 U-20 월드컵에서 우리나라는 한국 축구 사상 처음으로 결승에 진출하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그에 걸맞은 실력을 갖췄기 때문에 혹은 운이 따라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어린 선수들이 감독을 중심으로 One(원) 팀으로 똘똘 뭉쳐 이룩한 자랑스러운 성과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선을 우리 내부로 돌려 봅시다.

우리 동문회는 2019년 현재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히 지금의 동문회 위상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해는 지고 갈 길은 멀고, 마치 백천간두에 서있는 형국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지금이야말로 모든 일에 앞서 무엇보다 해안을 가진 리더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요?

지금 우리에게 진정한 리더는 누구일까요?

리더란 어떤 덕목을 갖추어야 할까요?

앞으로 우리 동문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끝없이 이어지는 질문에도 현명한 답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현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해 룡(28회)
부회장

작은 실마리를 찾아봅시다.

이번 U-20 축구 대표팀의 One(원) 팀 정신을 떠올려 봅시다. 출발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난제에 둘러싸인 우리 동문회가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할 가장 큰 덕목이 One(원) 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리더는 철저한 자기희생과 멸사봉공의 자세로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분열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개인의 욕심으로 사분오열 되었던 지난날의 우리 동문회의 어두운 모습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것이며, 그 전제조건으로 뼈아프게 반성하고 반성하고 또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국적은 변해도 학적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태산 같은 무게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8천 동문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하나로 모아 우리나라 최고의 약학대학이라는 자부심을 지켜나갈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남이 아닌 바로 저부터 동문회의 발전을 위한 작은 밑알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동문 여러분의 건승하심을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1회부터 63회까지 한 몸처럼 어우러지는 동문회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18일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정기총회에서 제22대 동문회장의 임무를 맡게 된 22회 최광훈입니다. 장마가 끝났다는 소식과 함께 35도 이상의 숨 막히는 불볕더위가 연일 맹위를 떨치고 있는 이 때 우리 선후배 동문님들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어 활기찬 여름을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우리 동문들은 대승적인 자세로 약사사회를 위하여 중요한 순간마다 참여하고 봉사하는 전통을 지켜 왔습니다. 지금도 꼭 필요한 일을 다양한 분야에서 묵묵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럽고 긍지가 느껴짐은 물론 앞으로도 우리 중앙대 약대가 약사사회를 위해 당연히 짊어져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배님들께서 만들어 주신 이 찬란하고 영광스런 유산 앞에 제 어깨는 커다란 중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우리 동문들과 함께라면 거뜬히 이겨낼 자신감 또한 충만합니다. 두려움 없이 주어진 과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의지가 제게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인 업무로 저는 요즘 시간 날 때마다 가르침을 주실 선배님들을 한 분이라도 더 찾아뵙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당연히 재능과 열정이 넘치는 멋진 후배들과의 만남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장의 임무를 부여받은 후 제일 먼저 역대 회장님들을 찾아 뵙고, 그분들의 경륜과 식견을 바탕으로 동문회 발전을 위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또한, 전임 사무총장님들을 만나 실무적인 차원에서 동문회의 다양한 활동과 업무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현안에 대한 어려움과 한계를 포함한 비판적인 의견까지 모두 아우른 끝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속 전진하며 커 나가야 하는 동문회를 만들기 위한 여러 방안과 비전을 마련할 기회를 가졌다고 자부합니다.

신임회장으로서 각 지역 동문회를 찾아다니며 인사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



최 광 훈(22회)
동문회장

면서도 가장 공을 많이 들이는 일입니다. 어느 지역 동문회를 가보아도 거기에는 분명 한 줄기 큰 흐름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신뢰를 바탕으로 끈끈한 정으로 이어진 선후배의 따뜻한 공감을 온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어느 곳, 어떤 관계에서 이런 정감어린 따스한 관계를 찾아볼 수 있을까 하는 뿌듯함과 감동을 가슴 가득 담아 돌아옵니다.

때로는 우려 섞인 이야기도 나오기도 합니다. 가장 큰 이유의 하나로 모임에 젊은 후배들 보기가 힘들다고 하시는 지적입니다. 걱정만 하고 있지 않겠습니다. 우선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야지요. 이번 동문회 상임이사단에 젊은 동문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당장 몇 차례 회의에서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으며 활력이 넘치는 모습을 목도하게 됩니다. 55~57회 젊은 동문들은 물론 6년제 이후의 후배들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행동하는 열기가 뜨겁습니다.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올 것으로 기대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회장을 맡은 지 2달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동문님들의 성원으로 벌써 큰 행사를 치루기도 했습니다. 100여명이 넘는 동문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룬 '동문 골프대회'에는 모교 김창수 총장님께서 처음부터 폐막까지 함께하며 교감하는 자리를 가져 우리 동문회의 저력과 함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직접 느끼실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사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며 아이디어를 토대로 더 재미있고 뜻깊은 행사로 발전시켜 동문님들을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신임 집행부가 역량을 집중하여 준비하고 있는 큰 행사가 있습니다. 오는 10월 13일 모교에서 가질 '동문 만남의 날' 행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날만큼은 우리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중앙대 약대 동문임을 확인하고, 보다 큰 자긍심을 같이 나누고 쌓아가자는 의미로 동문 만남의 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취지를 이해하고 찬동한 많은 동문님들이 벌써 참여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날짜를 조정하여 그 자리에서 동기회를 개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아이디어가 확대되어 실험반별 모임과 동아리 모임이 거론되고, 분회를 중심으로 지역별로 묶는 등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연을 묶는 자리를 계기로 새로운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거스를 수 없는 초연결 시대를 유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 간절합니다.

열심히, 잘 준비하겠습니다. 더 많은 동문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약속합니다. 우리 동문회 선후배가 한 분도 빠짐없이 1회부터 63회까지 같이 연결되어 한 몸처럼 어우러지는 동문회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동문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교류의 장 확대로 확고한 유대감 공유하는 여동문회 구축

전국의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여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여동문회장을 맡게 된 28회 양덕숙 인사드립니다.

어느 때보다 약사라는 전문가 집단이 대내외적으로 도전을 받고 있는 요즘입니다.

의사나 한약사와의 직역간 문제뿐만 아니라 갖가지 약사법상 불합리한 제도로 한시도 마음 편한 날이 없습니다. 인터넷과 모바일, 정보화와 빅데이터 시대에 약에 대한 정보의 독점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약사의 역할, 약사의 존재 이유를 새롭게 정립해야 하는 변곡점에서 전과 다른 패러다임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되는 복잡하고 어려운 현실 앞에 놓여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고령화 사회에서 방문약료 등의 새로운 약사의 역할 확대와 더불어 감수성과 공감능력이 필요한 현 시대에 동네약국에서, 병원이나 기업의 조직사회에서 여약사의 역할은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앙대학교 여동문회는 약사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온 중앙대학교 총동문회의 한축을 맡으면서 1980년부터 결성되어 도드라지지는 않지만 쉬지 않고 꾸준히 내실을 다져왔습니다.



양 덕 숙(28회)
여동문회장

전국의 여동문들은 2000년대 들어와 남녀평등시대에 걸맞게 약사 사회에서 성차별 없이 개국약사뿐 아니라 학계, 공직, 제약, 병원 등에서 각자 맡은바 역할을 멋있게 해내고 있습니다. 각 조직의 구성원으로 관록을 쌓아 각 분야의 회장, 분회장이나 지역의 여약사회장 등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퍼져 있는 약 1,500명의 우리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여동문들은 제대로 된 연락망의 부재로 상호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에서 소원한 관계에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여동문회장의 막중한 짐을 안은 저는 그동안 마포구약사회에서 약국을 경영하면서 지역약사회 임원과 회장을 역임하였고, 얼마 전까지 대한약사회 산하 약학정보원장을 맡아 개국과 회무의 균형감각을 잃지 않고 약사사회에 나름대로 이바지해 왔습니다.

따라서 여동문회 초창기 기틀을 잡아주신 선대 여동문회장님들로부터 전임 끝나운 회장으로 이어진 정신과 업적을 탄실하게 다져나가는 한편 저의 경력을 백분 살려 새로운 여동문회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바탕으로 기획력을 최대한 발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동문회 집행부는 우선적으로 전국의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한 여동문 상호간의 기본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는데 노력할 것이며, 이런 소통을 통한 내부 역량의 결집이 우리만의 자산으로 머물러있지 않고 다양한 인재를 영입하는 창구로서 지역의 각 약사회에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참여를 건인할 예정입니다.

큰일을 앞두고서가 아니라 상시 SNS를 통한 소식 공유를 기본적인 자산으로 확립하려 합니다. 연 1회 이상의 학술세미나를 통한 약사 전문성 강화와 더불어 동호회와 여행 등을 통한 다양한 교류의 장을 넓혀 한층 더 확고한 유대감을 공유하는 여동문회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국의 여동문회원들의 참여와 관심이 절실합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시대 새로운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여동문회의 위상과 역할이 빠른 시간 내에 정립될 수 있도록 가일층 힘을 보태주시시오.

누구의 것이 아닌 바로 우리의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여동문회입니다.

감사합니다.

제22대 회장단

직위	기수	성명	직위	기수	성명
회장	22회	 최광훈	부회장	22회	고석순, 유대식, 이준상, 강명희, 김인선, 김태일, 김홍진, 민장식, 박인성, 박동우, 박성준, 오황영, 이영욱, 이정석, 이주원, 전일수, 천경호, 한만영, 이명수
여동문화장	28회	 양덕숙		23회	박종화, 권석형, 이승하, 임준석, 홍순욱
수석부회장	22회	 박상룡		24회	이광선, 이규삼, 이범도, 함삼균
사무총장	25회	 최두주		25회	김광호, 문태화, 이광인, 이현수
사무부총장	34회	 신수민		26회	박정래, 최민규, 한갑현, 황완균
	34회	 한일권		27회	곽나윤, 김정호, 박영달, 한봉길
	36회	 임기민		28회	구영삼, 김희식, 이해룡, 장원규, 김영희, 이영주
				29회	이상수, 류형준, 이종민, 강대용, 김형수, 김인혜, 이종욱, 김은진
				30회	김광식, 백영주, 이장무, 최병원
				31회	심명섭
				32회	조양연, 정선종, 진창연, 안광열
				33회	신명수
				35회	이경선, 이성주, 은형주, 예현주
				36회	우경아, 임성호, 정창훈
			37회	황선관	
			41회	최명수, 김정민, 김소연, 정동현, 김유강	
			42회	이광희	

제22대 감사단

성명	기수	성명	기수	성명	기수
김홍진	20회	김수배	21회	강희윤	22회

제22대 상임위원단

직위	성명	기수	직위	성명	기수	직위	성명	기수
· 기금운영관리			윤리	정명진	18회	병원	임형미	32회
· 특별위원회	최광훈	22회	편집	김기명	18회	홍보	이영주	28회
· 권익옹호			섭외	이해룡	28회	정보통신	이경모	37회
사무총장	최두주	25회	제약경영	정민영	38회	문화체육	손병로	29회
사무부총장	신수민	34회	공직약사	유명식	32회	청년약사	김성태	55회
사무부총장	한일권	34회	ROTC	이규삼	24회	청년약사	김 윤	57회
사무부총장	임기민	36회	학술	김진수	36회			

제22대 이사

1회	김기홍, 김순일, 김옥동, 박학전, 손동현, 이광표, 홍흥만
2회	김종욱, 김홍식, 박문호, 신양균, 이문규, 정덕화, 황재수
3회	강승조, 김석자, 박기하, 박종순, 배영식, 선우연, 손석우 안경식, 이기상, 이병균, 최종목
4회	구본원, 김기호, 김현용, 김홍수, 문창하, 박노일, 박승배 안국영, 이창우, 정재현, 천홍기, 한민희, 허인희
5회	강태일, 김상오, 김영배, 김채윤, 박영규, 윤원영, 이명환 이승학, 임영규, 조동준
6회	김경희, 김동열, 김병기, 박정배, 신정숙, 안인혁, 유관열 유상열, 이현영, 임성기, 임완호, 장지용, 전희태, 진교성
7회	강승안, 김영덕, 김영일, 김정부, 박명신, 박상용, 박수배 박숙자, 배동운, 서명규, 신완균, 용영일, 유영후, 이기안 이능세, 이양현, 이용원, 정재일, 정조원, 최춘자
8회	김돈기, 김신자, 김연희, 김홍자, 김희영, 박도규, 박번일 배영애, 임상목, 오창준, 장영자, 조익환, 한석원
9회	권혁구, 김영빈, 김홍래, 문영동, 박성학, 박장우, 윤광노 이규진, 이근배, 최영근
10회	김영호, 박호일, 방순환, 변도문, 심수일, 안영태, 유정사 이대운, 이명민, 이홍수, 정수길, 정영기, 조규동
11회	고승하, 김미자, 김승업, 김정길, 김창중, 박신규, 박찬희 신명승, 이명자, 이철규, 정덕호, 허정범, 황공용, 황문상
12회	강옥희, 남기탁, 노덕재, 노석준, 박영찬, 서태욱, 심재웅 염윤기, 우준하, 이관하, 이성우, 이정구, 이호섭, 이효훈 조택상
13회	구연홍, 김종성, 문재빈, 박동규, 서국진, 안병식, 엄계숙 윤해선, 이상길, 이종각, 이충식, 임유재, 최창엽
14회	구종모, 김동원, 김명웅, 김윤국, 박기진, 신광근, 양인승 엄태항, 윤대봉, 정진모, 조길도, 조병화, 조영연
15회	고동석, 김용의, 박석동, 오세일, 원장희, 윤종준, 이상용 이영운, 임영식, 조찬희, 최영덕
16회	강명채, 고숙자, 권영복, 김광식, 백승복, 송용만, 안태환 이상규, 유기욱, 이범준, 이은술, 이은주, 조기현, 차동일 최광식, 최창원, 하상권, 한인희, 허사길
17회	정갑진, 장재민, 김성지, 신상직, 양희익, 김인형, 선우영환
18회	강응모, 김기명, 김애경, 김종기, 박계환, 이원영, 전광우 정명진, 조중형
19회	권창호, 김경오, 김재민, 김행소, 남상규, 박효식, 안병호 옥태석, 유태일, 이경옥, 이창욱, 임종철, 장호성, 윤건섭
20회	구장림, 권오규, 김대승, 김현태, 김홍진, 류화송, 문주기 박기배, 박영근, 배성진, 송창수, 유영내, 이극선, 이상일 이영희, 이호선, 임경원, 임구래, 정찬현, 조진환, 최석중 허문영, 한광식
21회	김대일, 김중효, 김수배, 백운경, 양주석, 홍종오
22회	고부환, 이규홍, 이명옥, 이진우, 이현희, 전철호, 차달성 한상훈, 손익동, 강희운
23회	강한구, 박창림, 김수중, 김영식, 김영출, 박희용, 박상진 방용남, 윤명숙, 정덕기, 조병훈, 조종호, 한치완, 하충렬 서동철

24회	김승재, 김태두, 양성철, 임무호, 장규욱, 정종근, 조종래 최영욱, 함한성, 황규진
25회	고성권, 김희섭, 김완기, 백광현, 성낙순, 이내홍, 이민원 이완희, 이종인, 조순현, 김춘규
26회	김정수B, 김화기, 선우일원, 권송상, 손영상, 윤용혁 김안식, 김학철, 이영준, 유영한, 윤광중
27회	김덕진, 민병희, 박수길, 변옥희, 서평석, 오순용, 오흥설 유재수, 윤영한, 이원일, 이창오, 최기선, 최중대, 최충식 현기원
28회	강철순, 고재호, 김유근, 신영무, 양창국, 유희동, 이병천 이상수, 이숙희, 전금용, 정원태, 조상오, 조형진, 최용철 한용문
29회	김은진, 박용삼, 서경원, 손병로, 유종운, 이 준, 이진자 하숙량, 한일룡, 현상배
30회	고석일, 김연하, 김정일, 김해승, 김현학, 김혜수, 신일균 윤미숙, 이진우, 정의차, 정용진, 최병태, 현익상, 홍성광
31회	김하형, 김성국, 변동선, 오세정, 윤희정, 이미자, 이춘로 황선미
32회	김신규, 박병호, 안광열, 유명식, 이경우, 정영복
33회	김은근, 김영재, 이정수, 조준상
34회	김보원, 전형수
35회	강의석, 박정근, 김미정, 고건호, 서유정, 송지숙, 양윤정 오창현, 이기훈, 이상훈, 최규룡, 황광우, 임종식
36회	김진수, 박종구
37회	김학림, 이경모, 한덕희
38회	임향숙, 정민영, 최은영
39회	권성렬, 박성훈, 이정근, 한은경
42회	정동만, 정원석
43회	이경은
44회	이선영
45회	김권식
46회	민지홍
47회	남우현
48회	차자현
49회	김성근, 김원호, 박진석
50회	남윤성
51회	김홍진, 문효진
52회	장진영
53회	강형규
54회	임재춘
55회	김민성, 김성태
56회	신상윤, 이경민
57회	김 윤
59회	주혜진
60회	김태수, 김희주
61회	이기철
62회	한석



	01
02	03
	04

3월 19일_ 회장단 회의 및 분회장 당선축하 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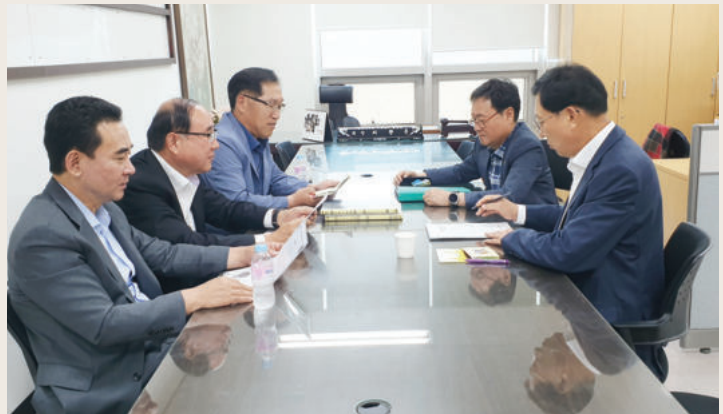
4월 12일_ 감사 수감

4월 14일_ 전지초도이사회

5월 29일_ 고문단, 자문위원단 회의



- 01
- 02
- 03
- 04



- 6월 4일_ 약대학장 면담
- 6월 11일_ 전현직 사무총장단 모임
- 6월 13일_ 인수인계
- 6월 26일_ 약대교수 간담회





01 02

03

04

6월 26일 _ 약사회 분회장 및 서울동문회장 간담회

7월 3일 _ 상임위원단 회의

6월 17일 _ 제1차 회장단 회의

7월 20일 _ 초도이사회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학위수여식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이다”

약학전공 55명, 제약학전공 59명 총 114명의 약학사 배출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2018학년도 학위수여식이 2019년 2월 20일 102관(약학대학 R&D센터) 3층 대강당에서 영예의 졸업생들과 그 가족들, 선후배들의 축하 속에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학위수여식은 63회로 약학전공 55명, 제약학전공 59명 등 총 114명의 졸업생들이 배출되었다

약학대학 학과장 최형균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학위수여식은 약학대학 연혁보고에 이어 이재휘(33회) 학장이 행사에 참석한 손동헌(1회), 허인회(4회), 염정록 명예교수님과 함께 모교 교수진 및 내빈들은 일일이 소개했다. 내빈으로는 약학대학 동문회 홍종오(21회) 회장, 김광식(30회) 사무총장이, 외부인사로는 대한약사회 조찬휘(15회) 회장, 서정옥 동작구약사회장, 임종철(19회) 한미약품 자문위원, 김중호(21회) 일동생활건강 사장, 우종오(29회) 하이텍팜 이사, 김대훈 건일제약 본부장 등이 참석하여 새로운 출발을 앞둔 후배들을 격려했다.



이재휘 학장은 식사를 통해 “여러분들은 대학 1학년 입학, 약학대학 입학이라는 두 번의 입학식을 거쳐 학창생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사회로 나가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모두 같은 입학시험을 보았고 동일한 교과과정 하에서 한 방향으로만 달려왔다. 그러나 교정을 떠나는 순간부터는 여러분의 열정과 꿈이 원하는 각자의 방향을 찾아 도전해야 한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오늘 학교를 떠나더라도 중앙대학교 약학대학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고 모교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동문회 **홍종오 회장**은 축사에서 “졸업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오늘까지 각고의 인내와 노력을 통해 학부모님들과 교수님들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음을 잊지 마라. 사회의 첫발을 약계로, 공직이나 연구 방면으로, 혹은 학업을 계속할 수도 있을 텐데 뜻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그렇지만 전국에 산재해 있는 유능한 동문 선후배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인생에 있어서 더욱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한다”며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8만 약사의 수장으로서 6년간 봉사하고 곧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모교 졸업식에 참석할 수 있어서 의미가 크다. 이제 취업의 기로에 선 입장에서 부디 마음가는대로 움직일 일이다. 변호사도 변리사도 될 수 있고, 심지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도 약사들이 포진하고 있다. 다 자기가 할 탓이다. 긍지를 가지고,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이라는 자존심을 가지고 생활하자. 선배들이 든든하게 뒤를 받쳐 줄 것이다”라고 덕담을 건넸다.

이어 본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학위증 수여 의식이 진행되었는데, 이재휘 학장은 졸업생들을 대표하여 약학전공 강인규 학생과 제약학전공 고석훈 학생에게 학위증을 수여하고 학사모의 태슬(술)을 넘겨줌으로써 학사로서 재탄생하게 되었음을 알렸다.

행사에 참석한 모든 교수들이 단상에 도열하여 전체 졸업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며 축하의 말을 전함으로써 이번 행사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했다.



2019년 2월 제63회 졸업생 명단

약학전공

강인규 강현식 고영림 권다영 김경미 김동관 김리아
 김민정 김보경 김성대 김소민 김소현 김연수 김연주
 김예희 김재창 김정민 김지수 김지영 김현철 김혜란
 김홍조 남달리 노유란 류다연 박서영 박선영 박소현
 박수민 박승찬 박재현 박준용 박준우 박지원 박찬양
 박하늘 박한진 박희준 변근정 변수현 변준우 서유정
 손혜림 안진세 오정현 용환솔 윤미래 윤형식 이경민
 이상우 이소은 이현택 전희섭 채승원 최재영

【이상 : 약학 전공 55명】

제약학전공

고석훈 김다혜 김대용 김명준 김모송 김민지 김병덕
 김용민 김한별 박경민 박세윤 박준우 성민영 성유림
 성창은 송주아 신유선 양금아 양희망 여문기 여유희
 우주화 유수빈 유찬재 유철하 유하린 윤석민 윤소정
 윤승현 윤영진 윤정인 이민규 이민아 이승민 이영담
 이영로 이왕태 이유나 이재은 이주은 이지훈 임수빈
 장영빈 장윤희 장재영 전소영 정다운 정송아 정영섭
 정택근 주민경 지민규 최원열 최주현 하연주 허문영
 허재원 홍영기 홍효빈

【이상 : 제약학 전공 59명】

수상자 명단

교내수상자

구분	성명
최우등(대학수석)	신유선
최우등(학부수석)	김재창
최우등	박찬양
우등	박승찬
우수	주민경
공로상	정영섭

교외수상자

기관명	성명	기관명	성명
대한약사회	신유선	(주)한미약품	여유희
서울특별시약사회	김재창	(주)일동제약	김모송
한국약학교육협의회	박찬양	(주)삼진제약	안진세
경기도약사회	박승찬	(주)건일제약	김현철
동작구약사회	양금아	(주)하이텍팜	정다운
본동문회	김소민	(주)온누리에이치엔씨	전소영
여자동문회	박세윤		
21회 동기회	주민경		
30회 동기회	김민지		

교내 학술상 우등 수상자

박승찬 양금아 김소민 박세윤 여유희 김모송 안진세 김현철 전소영

교내 학술상 우수 수상자

주민경 김민지 양희망 정송아 남달리 성민영 박소현 임수빈 최재영 윤형식 우주화 김보경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제62차 정기총회

조각돌을 치우고 커다란 산을 넘자

신임 동문회장에 최광훈(22회) 동문,
여동문회장에 양덕숙(28회) 동문 선임



지난 5월 18일 약학관 11층 유니버시티클럽에서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제62차(2019 회계연도)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총회에는 21대 집행부의 임기가 종료되고 22대 새로운 동문회장을 뽑는 의미 있는 자리이면서 동문회 1년 살림을 결산하고 새로운 1년의 준비를 다짐하는 실무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하느니만큼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이 되었다.



홍종오(21회) 직전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의 한사람으로서 동문회장을 맡아 동문회 발전을 위해 일을 시작한지가 엇그제 같은데, 세월은 유수와 같아 벌써 2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약업발전을 위한 심포지엄을 성공리에 개최해 개국약사 뿐만 아니라 제약업계 등 약업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계기를 마련했고, 약대생의 미래 진출을 돕고자 실시한 멘토링 사업과 재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급 사업 등 모교와 동문회 발전을 위해 부지런히 달려 왔다”고 회고했다.

홍 회장은 “이 모든 것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라는 기치 아래 중앙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모교와 동문회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재임기간 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아낀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재휘(33회) 모교 학장은 축사에서 “약학대학과 약학대학 동문회는 수레의 두 바퀴 같은 관계라고 생각한다. 함께 한 방향을 보고 잘 굴러간다면 느리지만 앞으로 꾸준히 나아갈 수 있다”며 “약학대학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모교에 대한 더욱 큰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축사 전문을 통해 “4차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위협받는 약사 직능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며 새로운 약사사회의 역사를 써나가는데 있어 중앙대 약학대학 동문 여러분의 활약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2대 동문회를 이끌고 갈 수장으로 최광훈 신임 회장이 선출되며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진통이 따르는 법, 선출 과정에서 지난 대한약사회장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홍보유인물 관련 이의제기가 있었으나 선거라는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낸 갈등의 소산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했다.

수상자 명단

총장 | 김종효(21회) 일동생활건강(주)
공로패 | 정상수(24회) (주)파마리서치프로덕트

학장 | 오창현(35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공로패 | 김진수(36회) 참온누리약국

총동창회장 | 이현희(22회) 샘터약국
공로패 | 이준상(22회) 백화점온누리약국

동문회장 | 강철순(28회) 에이스약국
공로패 | 김연하(30회) 메디팜대신M약국
이병각(31회) 열린약국
이정우(37회) (주)에버셀
황인아(54회) 메디칼사랑약국





이런 동문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신임 집행부는 환골탈태의 정신, 분골쇄신의 각오로 우리 동문회에 드리워진 그늘을 확실히 걷어내야 할 막중한 임무를 지니고 있다고 보겠다.

최광훈 회장은 이런 분위기를 충분히 감안하여 “우리 동문회는 자그마한 조각돌에 걸려 넘어졌을 뿐이다. 이 조각돌을 치우기 위해 동문회장으로서 온몸을 바쳐 헌신하다 보면 어느 순간엔가 커다란 산을 넘고 있는 동문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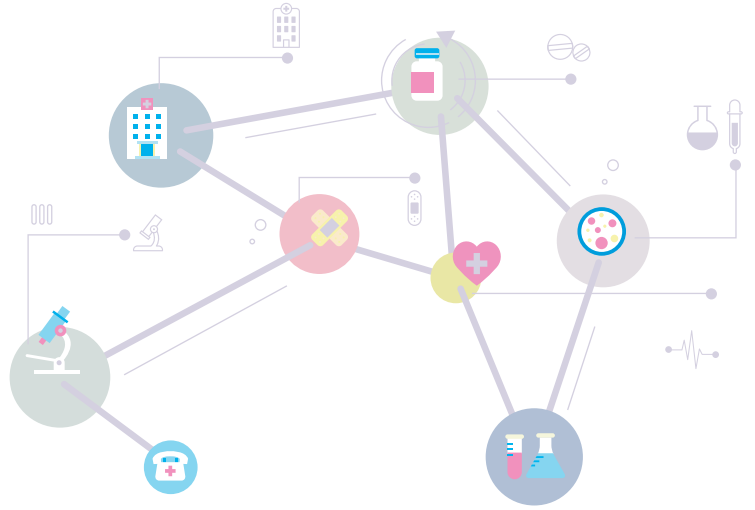
또한 최 회장은 “중앙대 약대 동문들은 약사사회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앞으로 우리 동문회는 개국, 병원, 공직, 제약, 유통 모두를 아우르는 동문회로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2년 동안 동문회에 헌신해온 21기 선배들에게 감사드리며 우리 22기 중앙대 약대 동기들은 동문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배전의 각오로 열심히 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신임 여동문회장으로 양덕숙(28회) 동문이, 감사에는 김홍진(15회), 김수배(21회), 강희윤(22회) 동문이 맡아 수고해 주기로 했다.

공식행사의 2부에서는 회무보고와 2018년도 일반회계 수입·지출 결산 심의와 2018년도 특별회계(장학기금) 결산 심의의 건, 감사보고, 2019년도 사업계획(안), 2019년도 일반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9년도 특별회계(장학기금) 예산(안) 등에 대한 승인이 핵심사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곁들여 특별한 이의 제기 없이 이루어졌다.

참석한 내빈으로는 최종목, 임완호, 임상목, 권혁구, 유정사, 서국진, 장재인, 김현태 고문을 비롯하여 조찬휘 자문위원, 이경옥, 김홍진 감사, 곽나윤 여동문회장, 강희윤 여동문회 고문이 참석했고, 모교 이재휘 학장을 위시하여 손동헌, 허인회, 염정록 명예교수, 김홍진, 서동철, 최영욱, 황완균, 이지윤 교수가 자리를 빛내 주었다.

또한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 김희식 여약사회장, 경기도마약퇴치본부 이정근 회장, 중구약사회 김인혜 회장, 영등포구약사회 이종옥 회장, 은평구약사회 우경아 회장, 용산구약사회 정창훈 회장, 강동구약사회 이광희 회장, 고양시약사회 김은진 회장 및 군포시약사회 이영주 회장이, 그리고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이형철 부회장,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개국동문회 이시영 회장,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백완숙 회장, 허인영 총무,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김은숙 회장, 문재란 회장, 동덕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이순훈 회장,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전용철 회장, 한국여약사회 김성순 회장 등이 우정 참석하여 신임회장 선임을 축하하고 협조와 우의를 다지는 기회를 마련했다.



제2회 약학포럼

국내 제약 및 바이오 의약품의 성공전략을 마무리하면서..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총동문회(회장 홍종오)와 의약업경제정책연구소(소장 서동철)가 주관하고 한미약품(주)이 후원한 제2회 약학포럼이 4월 30일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11층 세미나실에서 ‘국내제약사의 글로벌 진출 성공전략’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올해로 2회째 맞는 이번 포럼은 해외 진출에 성공한 국내 제약사들의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제약회사의 글로벌 진출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포럼은 중앙대 약대 동문, 약대 교수 및 학생, 제약업계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특히 손동헌, 허인회 명예교수께서 참석하여 끝까지 자리를 지키셨다.

홍종오 동문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세미나는 실제 해외 진출에 성공한 국내 제약사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알차고 실질적인 내용으로 토론의 광장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소개했고 “차기 집행부도 본 학술세미나가 계속 이어나가길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재휘 약대 학장은 축사에서 “이번 약학포럼이 약대생들의 사회적 역량을 키워서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다차원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는 많은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축사에서 김창수 중앙대 총장은 “이번 포럼은 중앙대학교가 새로운 100년을 위해 발표한 글로벌 인재 양성, 세계적 연구집단 육성, 최적의 교육 및 연구환경 조성을 통한 국제화 실현과 같은 맥락이다”며 “중앙약대의 약학포럼이 우리나라 제약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기대했다.



초청인사로 초대된 김동연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이사장은 “그동안 신약은 변화에 따라 글로벌 국가의 정책도, 규제도 빠른 시간에 많이 바뀌고 있지만 국내 제약관련업체나 기관에서는 아직도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다”며 “국내적으로 신약개발의 분위기가 무르익는 오늘날, 글로벌 진출 전략이란 주제로 열리는 약학포럼은 아주 중요한 시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자유한국당)은 축사 서한을 통해 제약바이오산업이 정부의 중점육성산업으로 선정된 시기에 개최되는 포럼인 만큼 앞으로도 대한민국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주제로 더 발전된 포럼이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공식 행사를 마친 후 진행된 포럼은 최병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심사위원과 중앙대 약대 서동철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해외 초청인사 발표(미안마 의약품 등목 절차 및 미안마 제약시장 최근 트렌드) △북경한미 중국진출 전략 △해외 연구소 진출 전략 및 성과 △다이아찌산교를 중심으로 본 일본계 회사들의 글로벌 진출 전략 △제약산업의 베트남 진출 등의 주제로 마련된 제약산업 세미나 부문과 양자간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으로 구성돼 진행됐다.

모든 연자들의 주제 발표가 마친 후, 엄승인 상무(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조헌제 상무(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가 패널토론에 동참하여 마지막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지면서 제2회 약학포럼이 마무리되었다.

미얀마 의약품 등록 및 규제 및 미얀마 제약시장의 최근 트렌드



먼저 Dr Aye Nyein Myat(Deputy Director DFDA, Ministry of Health, Myanmar)는 미얀마 의약품 등록 및 규제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이어 Mr. Zaw Moe Khine(Chairman of the Myanmar pharmaceutical and medical equipment entrepreneurs association, Group ceo & managing director of aa medical product ltd, pacific aa group)는 미얀마 제약시장의 최근 트렌드에 대해 설명했다.

북경한미 중국진출 전략

이관순 한미약품(주) 부회장은 북경한미의 중국 잠재시장 공략에 대한 성공 사례를 발표했다. 한미약품은 국내 제약사 중에서도 일찌감치 해외공략에 나선 기업 중 하나다. 이미 진출 20년이 넘는 북경한미는 연간 2,300억 원 규모 매출액을 올리며 확실한 사업 축으로 자리 잡았다. 북경한미는 어린이용 정장제, 기침가래약, 항생제 등 총 20여개 제품을 현지에서 판매하고 있다. 중국 전역에서 활동하는 영업사원 800여명, 연구개발(R&D) 인력 160여명 등 총 1,300여명이 근무 중이다.

북경한미는 ▲우수인력 확보 ▲가까운 허가관련 정부기관 [NMPA(CFDA), CDE] 위치 ▲한국에서의 접근성의 이유로 북경에 자리를 잡았으며, 제약시장이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중국을 공략해 글로벌화를 위한 전초기지로 삼았다.

특히 매해 1,540만 명의 신생아가 출산되는 잠재시장을 공략하여 1996년 ‘마이아이’ 어린이정장제 일반의약품을 앞세워 소비시장을 공략했다. 그 결과 중국 아동약 시장 점유율 1위라는 성과도 거두었다.

이 부회장은 핵심 경쟁력으로 ‘현지화’를 꼽았다. 산업이 몰리는 상해가 아닌 북경에 투자한 이유도 북경대, 청와대 등 우수 인력 자원이 풍부했기 때문이다. 또한 “현지 생산, 100%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며, 전 중국을 커버하는 직접 영업조직이 800명이다. 병원, 도매상 직거래로 유통을 장악하고 있다”며 “전문 영업 인력의 70%가 의·약학 전공자다. 연구소 우수 인력을 배양하기 위해 국내 연구소와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연구소 진출 전략 및 성과

박정화 대웅제약 해외전략실장은 대웅제약 해외 연구소 등 전략기지 역할 수행에 대해 설명했다. 대웅제약의 글로벌 전략을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오픈 콜라보레이션'이다. 그 일환으로 전세계 글로벌 제약사와 활발한 협력 및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으며, 국내 제약사 중 최대 해외 법인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대웅제약은 ▲강점 중심 ▲현지화 전략 ▲신사업 발굴을 중심으로 해외에 연구소를 운영해 내·외부 연구·개발 자원의 융합으로 최고 경쟁력을 보유한 혁신신약 개발을 꾀하고 있다.

박 실장은 "대웅의 해외 연구소는 중국, 인도, 미국 등 현지의 우수한 연구자원을 활용하고 대웅 생명과학 연구소와 협력하여 연구개발 능력의 시너지를 높이고 글로벌 연구성과를 확보해 가고 있다"며 "대웅제약이 글로벌 헬스케어 그룹으로 성장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전략기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중 인도의 연구소는 인도의 우수한 연구인력과 경험을 활용하여 미국, 유럽 선진 제약 시장 진출 품목을 개발하겠다는 목적이 있다. 특히 인도 시장은 원료의약품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수준의 제네릭 완제의약품 공급처로 부상

하고 있으며, 2009년 이후 승인된 ANDA 중 인도제약사가 34%를 차지하고 있다.

이희자 한국다이이찌산쿄 이사는 다이이찌산쿄의 '오픈이노베이션과 파트너십 확대'에 대해 설명했다. 일본은 1970년대부터 고령화를 시작으로 1980년 정부의 약가인하, 내수시장의 정체 등을 겪으며 내수 시장이 침체했다. 이 때문에 일본 제약사들은 M&A와 해외진출을 통해 출구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다이이찌산쿄 역시 당시에 '다이이찌'와 '산쿄'가 합병된 회사다.

이 이사는 "실제 다이이찌산쿄는 국내 시장에 진입할 때도 제일약품과 조인트벤처 법인 설립을 통해 들어오는 등 국내사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항암제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확립하기 위해 아스트라제네카와 후보물질 'DS-8201'에 대한 글로벌 개발 및 상업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에도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비즈니스에는 성장과 생존 두 가지가 있다. 생존을 위해서는 과감한 공격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 경쟁우위의 제품과 적합한 비즈니스 전략, 이를 최대화할 수 있는 사람과 조직의 최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약산업의 베트남 진출

정원태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글로벌개발본부 전무는 '베트남은 지리적으로 매력적'인 점을 소개하였다. 특히 베트남은 세계 10위의 의약품 소비국가로 제2의 중국으로 불리며 국내 제약사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국제제약규정(ICH-GCP)을 받아들여 글로벌 임상시험이 활성화돼 있는 아시아 국가 중 하나다.

한국유나이티드는 베트남에 진출해 성공을 거둔 기업이다. 정 전무는 베트남은 현지 시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동남아

등 주변 국가로 진출하는 거점으로서도 매력적이라고 밝혔다. 베트남 정부가 산업 투자 유치에 적극적이어서 공장 설립이 쉬운 데다 아세안 국가와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유나이티드는 향후 다품종 소량판매에서 개량신약, 항암제 위주의 판매를 진행할 것"이라며 "신규항암제 및 개량신약 중심의 마케팅, 경제적이고 도덕적인 OTC를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홀인원보다 더 소중한 선후배 만남의 장

2019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 골프축제

올 봄은 유난히 미세먼지와 황사가 잦아서
봄 햇살에 눈부신 날보다 찌푸린 날이 더 많았다.
그래도 계절의 여왕답게 찬란한 햇살에 봄꽃 흐드러진
5월 중순 어느 날 신임 최광훈 동문회장님의 전화를 받았다.
늘 그랬듯이 점잖고 차분한 목소리로
6월 동문 골프축제 준비를 맡아달라는 담담한 말씀이셨다.



5월 18일 동문회장장에 취임하시고 공식적인 첫 행사이니 이런저런 핑계를 댄다고 하더라도 무엇보다 6월 골프행사는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도 너무 부족했다.

다행히 5월 19일 경기도약사회 학술제에서 최광훈(22회) 회장님, 박영달(27회) 경기도지부장님, 최용철(28회) 전 구리시약사회장님, 김광식(30회) 직전 사무총장을 만나 골프축제 전반에 대해 걱정과 기대가 교차하는 편치만은 많은 심정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동문회 단합의 선결조건으로 만남이 잦아야 친해지고 덩달아서 일도 함께 잘 된다는 가장 원초적인 믿음을 기반으로, 체육대회에서 골프를 독립시켜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골프축제'를 만든 지 올해로 세 번째가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골프축제의 배경이며 철학이며 이전의 진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을 격의 없이 이야기하다 보니 답답한 가운데서도 큰 가닥이 잡혀 가며 긍정적인 평상심을 되찾을 수 있었다.

이전 집행부에서 히든밸리CC(충북진천)와 계약한 내용의 핵심은 6월 9일 일요일 12시부터 3개 홀에서 동시 티업으

로 진행하는 샷건 방식이었다. 샷건으로 진행하려면 최소 팀수가 36팀(144명)이 보장되어야 하며, 원래 골프장측 희망사항은 가급적 40팀(160명) 참가를 원하고 있었다.

골프대회 안내공문은 4월말 이미 전 동문에게 발송되었는데 5월 20일 현재 사무국에 접수된 참가자는 52명으로 샷건 최소 참가기준인 144명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우선 샷건 진행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골프장과 재협의를 해야 했다.

힘들고 복잡한 고민도 여럿이 같이 하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길이 보이는 법이다. 동문회 박실장과 긴밀히 연락하면서 일당백의 능력자 준비위원들을 모시고 5월 24일 금요일 저녁 절박한 심정으로 준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를 빌려 이전의 모든 경험을 공유하고 진행의 실마리를 풀어 준 계기가 된 준비위원회에 기꺼이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최광훈 회장님을 비롯하여 최용철, 한일권(34회), 이정근(39회), 권성렬(39회) 준비위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첫모임 이후 대략적인 윤곽이 잡혀갔고 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노력이 조금씩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지역별, 기



수별, 동호회별 대표 동문들과의 유선연락을 시작으로 이전 대회 참가동문 모두에게 가동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통해 적극적인 참가를 독려하기 시작했다.

5월 29일까지 샷건 진행여부를 골프장에 알려줘야 했고 팀 확보가 안 되면 별도 계획을 세워야 했다. 한미약품 임종철(19회) 자문위원님을 비롯하여 다수의 선후배님들의 후원물품이 확보됐고 참가동문이 점점 늘어났다. 특히 약대 동기인 한국콜마 김형수(29회) 전무의 선크림 세트와 권성렬 의정부분회장의 캔맥주 협찬은 예상치 못했기에 더욱 감동이 컸다. 이 자리를 빌려 물심양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선후배 동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꼭 드려야겠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동문회의 저력이며 끈끈한 선후배의 정을 몸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이 나에게서는 더 큰 보너스의 의미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짧은 시간 준비위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한다고는 했지만 참가자수 확보가 말처럼 쉽지는 않았다. 빠른 결정이 필요했다. 5월 29일 골프장에 샷건 불가 통보한 뒤 티업시간을 1시간 앞당겨 3개 홀로 나눠 대회를 진행하기로 재협의를 하였다. 최종 참가자 104명의 총 26팀으로 2019년 골프축제를 확정짓고 식음료 계약과 상품 준비 등 시상식 진행을 점검하고 조별 명단을 확정지어 나갔다.

행사 며칠 전 역대급 VIP가 참가신청을 하였다. 김창수 중앙대학교 총장님이 약대동문회 골프대회 사상 처음으로 참가를 원한다고 비서실에서 연락이 온 것이다. 총동문회나 재단 측, 그리고 중앙대학교 브랜드에서 약대가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을 생각하면 그리 놀랄 일은 아닌 듯싶고 오히려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싶었지만 의미 있고 고마운 일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다행히 대회당일 쾌청한 날씨가 행사진행에 큰 공신 역할을 했고, 능력 있는 준비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최두주 사무총장님의 도움으로 골프축제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 삼삼오오 사는 곳과 인연과 친소관계와 사회활동 등의 관계로 맺어진 동문들이 새벽부터 집을 나서 하루 긴 일정 생각해 평소와 달리 오는 길에 국밥도 한 그릇씩 먹고 휴식 행사에 누가 될까봐 길을 서둘렀겠다. 퍼팅연습장에서 연습을 핑계로 퍼터를 이리저리 움직여 보기는 하지만 마음은 이미 공보다는 오랜 만에 만나는 동기들이며 선후배 안부 묻기에 바빠진 지 오래다.

경기를 마치고 시간에 맞춰 최광훈 동문회장님의 개회선언으로 오늘 골프축제의 성대한 막이 올랐고, 인사와 덕담이 날시만큼 여유롭게 오갔다. 평소에도 노익장을 과시하는데 부족함이 없으셨던 손동헌(1회) 명예교수님의 지치지 않는





2019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 동문 골프축제 수상자 ★

개인 시상내역

우승(신페리오)	권성렬(39회) 동문
메달리스트	최민규(26회) 동문
여자 1위	김윤경(32회) 동문
준우승	박웅삼(29회) 동문
준 메달리스트	김현태(20회) 동문
니어상	손의동(22회) 교수
장타상	남 민경훈(39회) 교수 여 백희숙(34회) 동문
행운상	김창수 총장
에이지슈터상 (최고령상)	손동헌(1회) 명예교수 (90세 84타)
다버디상	한일권(34회) 동문
다파상	박병섭(26회) 동문
다보기상	장재인(17회) 동문
으뜸상	염정록 명예교수
노력상	안용태(24회) 동문 김윤수(26회) 동문
분발상	유완진(32회) 동문
대박상	김창종(11회) 교수 송용만(16회) 동문 이범도(24회) 동문 곽나윤(27회) 동문 윤기숙(30회) 동문
3위(신페리오)	함삼균(24회) 동문
베스트 드레서	강희윤(22회) 동문

단체전

동기회	우승	26회 동기회
	준우승	28회 동기회
	3위	34회 동기회
분회	우승	안양분회
	준우승	용인분회
	3위	안산분회
최다참가 기수	1위	26회(12명)
	2위	27회(9명)
최다참가 분회		안양(11명)

축사가 다시 한 번 화제가 되었고, 결국 이 에너지가 이어져 90세 최고령 참가자이신 교수님께서 84타의 우수한 성적으로 에이지슈터(Age Shooter)상을 수상하셔서 큰 박수를 받았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몸소 실천해 주신 손동헌 명예교수님이 100세 되시는 해에도 필드에서 정정한 모습을 보여 주실 것을 기대한다.

최종 결과는 권성렬 동문이 우승을, 최민규 동문이 메달리스트, 여자 1위로는 김윤경 동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나 이미 승패를 떠난 축제와 화합의 무대인지라 참가자 전원이 수상자라고 할 만큼 분위기가 무르익어 갔다.

우정 자리를 빛내 주기 위해 먼 길 마다않고 달려와 주신 이재휘(33회) 모교 학장님을 비롯한 최형균 학과장, 황완균(26회) 전임 학장 등 교수님들의 참여가 돋보였는데, 손동헌 명예교수님이 에이지슈터상을, 손의동 교수님이 니어상을, 민경훈 교수님이 장타상을, 염정록 명예교수님이 으뜸상을, 김창종 교수님이 대박상을, 그리고 김창수 총장님이 행운상을 수상하시는 등 다른 동문들 못지않은 열정과 참여로 오늘 골프축제의 의미가 배가되지 않았나 싶다.

바쁜 일정에도 하루를 온전히 우리 동문들과 필드에서 보내신 김창수 총장님은 다른 어느 대학보다 약대의 단합과 선후배간의 돈독한 우의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믿음을 배가시키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높이 평가해 주셨다.

예년의 경우 빠듯한 일정에 마지막 순서인 행운권 추첨에서 예기치 않게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있었던 터라 이번에는 미리 추첨을 끝내고 고지를 하는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바람에 시간단축은 물론 운영이 매끄러웠다는 찬사를 부상으로 받기도 했다.

다행히 큰 사고나 돌발상황 없이 순조롭게 모든 행사가 마무리되었지만 이번 골프축제를 준비하면서 당연히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거쳤다. 많은 고민과 그 몇 배의 발품을 팔았음을 물론 결정적으로 동문회 회장단과 준비위원회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행사에 직접 참여해 주신 동문 선후배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 많은 과정에 씨줄과 날줄이 되어 종국에는 동문회의 존재 이유와 당위성을 확인하는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당연히 이를 바탕으로 더욱 집중하고 혁신하여 동문회 발전에 자양분을 공급하는 순기능에 대해 많은 생각을 정리하게 해주었다.

내년에도 골프축제가 질적, 양적으로 좀 더 발전되고 세련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참가해주신 동문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

동문들의 끈끈한 정과 우정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강 승 조 (3회)
동기회장



3회 동기회가 약대 졸업 60주년을 맞았습니다

참 세월이 빠릅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이 매우 실감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우리 동기들은 1955년 풍운의 뜻을 품고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에 3회로 입학하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55학번에 해당이 되는 셈이지요. 당시는 6.25전쟁이 끝난 지 몇 해 되지 않아 사회환경이나 생활여건이 매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속에서도 대학공부를 이어가고자

말그대로 미군부대의 슈샤인 보이도 하고, 기름통 뚜껑을 따는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어렵게 공부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덕분에 동기들보다 2년 늦게 졸업하였고 약사 국가고시도 어렵게 통과하였습니다.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지만, 뒤돌아 보면 여러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담담하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던 귀한 시절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 21세기를 맞이하여 더 새롭게 더 높게 우뚝 서는 우리 중앙대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 중앙대 약대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약대로서 입지를 굳건히 함은 물론 글로벌 약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





얼마전 약대 동문회에서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동문회에서 정기총회를 진행하면서 특별히 졸업 60주년을 맞은 55학번 동기들을 위해 별도의 기념행사를 열어준 것이지요. 우리 동문들의 따뜻한 마음을 다시 한번 체감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 지면을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날 참석한 저희 동기들이 채 10명이 되지 않았지만, 평소에도 월 1회 정도 중삼회(중앙대 약대 3회 입학생 모임)라는 모임을 갖고 서로의 안부와 건강을 물으며 또 동문들의 소식을 전하며 서로 친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들 현장에서 은퇴하고 노년의 여유로움을 지혜롭게 보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약대 졸업 후 동물약품 사업에 뜻을 품고 30대에 이글벤티라는 회사를 창업하여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 성수동에서 조그맣게 시작한 회사가 어느덧 많은 직원들의 헌신과 주변 분들의 도움으로 오늘날 아직 규모는 작습니다만 매출 300억대의 중소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기회 모임에서 회장 역할도 하고 또 약대 동문회에서 초대도 받고 하면서 우리 중앙대 약대 동문들의 끈끈한 정과 우정을 느낄 수 있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중앙대는 지난 해 창학 100주년을 맞이할 만큼 대한민국에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명문 대학교입니다.

수 많은 동문들이 사회 각지에서 제각기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약대 동문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제약 분야를 비롯한 약업계 전반에 걸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약업계를 이끌고 있는 우리 약대 동문들이 너무나도 자랑스롭습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변화의 속도가 과거보다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 만큼 빠른 변화에 맞춰 적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전 중앙대학교 총동문회 김종태 회장을 만나 우리 중앙대학교가 전통의 사학 명문을 넘어서 글로벌 명문 사학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비전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1세기를 맞이하여 더 새롭게 더 높게 우뚝 서는 우리 중앙대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 중앙대 약대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약대로서 입지를 굳건히 함은 물론 글로벌 약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금번 '졸업 60주년 기념 행사' 라는 소중한 행사를 진행해 주신 동문 선후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동문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짧게나마 소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 춘 원 (29회)
특허심판원 심판장



특허외길,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도전정신으로



저는 1985년 중앙대 약대를 졸업한 이후 손동헌 교수님 연구실에서 조교를 하면서 식사를 마치고, 1987년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건연구사로 공무원을 시작하였으며, 1994년 특허 심사관으로 특채되어 2019년 현재 특허심판원 심판장(국장)으로 특허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공직을 시작한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약품, 식품, 대기, 수질, 미생물 등 매우 다양한 분야의 검정 및 시험업무를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산하 연구기관이었습니다. 첫 월급으로 18만원을 받은 기억이 있는데, 제약회사에 취직하였던 다른 친구들에 비하면 매우 적은 월급이었지만, 박사 학위과정을 하고 있던 저에게 연구원의 시설과 장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연구원에서 7년을 근무하면서 1993년 박사학위를 받았고, 1994년에는 연구원에 같이 근무하던 아내를 만나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1987년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된 물질특허제도 때문에 특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던 시기였고, 저도 박사학위 취득 후 향후 진로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연구실 문을 열고 닫는 바람에 살짝 들린 신문에서 특허청이 박사학위 소지자를 특허심사관으로 특별 채용한다는 신문 광고를 보고 바로 지원하였습니다. 1994년 봄부터 시작된 채용절차가 12월이 되어서야 마무리되어 약무직 3명을 포함한 8명의 박사들이 특허청에 심사관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물질특허제도 도입 이전에는 새로운 물질을 발명하더라도 그것을 물질특허로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방법특허로만 보호하였다. 물질특허의 권리범위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약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미국의 통상압력으로 인하여 1987년부터 특허법을 개정하여 물질특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도 같은 해에 개정되어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때 특채된 8명의 심사관들이 특허청 특채 심사관의 시작 이었는데, 2019년 현재 특허청 전체 직원 1800여명 중 특허심사관은 816명으로, 그 중에서 기술고시 또는 일반승진 출신 특허심사관이 314명인데 비하여 특채 출신 심사관은 504명으로서 특허청 심사관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특허청에 입사했던 다른 특채자들은 모두 특허청을 떠나서 변리사 사무소 개업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특출한 재주가 없는 저는 선산을 지키는 못 생긴 소나무처럼 25년 동안 특허청을 지키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창제하신 과학적인 글자인 ‘한글’과 같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부심 또는 자긍심을 가질만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특허분야도 그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의 2018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특허를 가장 많이 출원하는 나라는 중국(138만 건)이며, 그 다음 순서는 미국(60만 건), 일본(31만 건)이고, 우리나라는 20만 건으로서 세계 4위입니다. 그러나 중국인구가 13억이고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국민 1인당 특허출원건수로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세계 1위로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창의력과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허청에 입사해서 약품화학과에서 의약특허 심사관으로 일하다가 특허청 업무전체를 전산화하는 프로젝트였던 KIPONET 개발팀에 차출되어 일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시

절부터 얼리 어댑터였고, 컴퓨터 매니아로서의 취미가 이렇게 공무원이 되어서 빛을 보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지만, 개발팀에서 SI업체의 프로그래머들과 함께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및 관련 시스템 개발에 큰 공을 세우게 되어 1999년 KIPONET 개통 기념행사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특허청에 입사한지 5년 만에 동기들 중에서 최초로 서기관으로 승진도 하게 되었습니다.

서기관 승진 후 약품화학과로 다시 돌아와서 의약분야 특허심사와 함께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등 의약특허분야의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한 정리 작업을 하였습니다. 서기관 승진하고 3년 후인 2003년에는 다시 과장 승진을 하여 약품화학심사과장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승진할 수 있었던 이유는 90년 중반부터 우리나라의 특허 출원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심사관증원과 조직 확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이고, 제가 박사 특채 1기라는 것도 빠른 승진에 크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2004년부터 3년 동안 특허법원에 파견되어 특허소송사건에서 기술심리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고, 2007년 특허청에 복귀한 후 곧바로 장기국외훈련시험에 합격하여 미국 워싱턴 D.C 소재 로펌과 연방항소법원에서 2년 동안 국외 직무훈련을 받았습니다. 미국에 2년 체류하던 때가 제가 공직에 입문한지 20년쯤 되었을 때인데, 미국 생활은 저 개인의 발전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집사람에게도 평생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훈련을 마치고 귀국한 후에는 특허청의 특허심사 정책을 총괄하는 특허심사정책과장과 특허심사기획과장으로 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공로가 인정되어 2014년 특허청 박사 특채자로서는 최초로 고위공무원(국장)으로 승진을 하였고, 아랍에미레이트연합(Unted Arab Emirates, UAE)에 원전을 수출하고 추진되었던 여러 가지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UAE의 특허심사를 대행하는 사업단장을 맡아 특허청 심사관 4명과 함께 UAE 아부다비에 파견되어 3년간 성공적으로 사업을 정착시키고, 제2기 사업단이 파견될 수 있도록 하고 2017년 귀국하였습니다. 약학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중동 국가에 파견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사례이긴 하지만, 새로운 일에 대한 호기심과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도전정신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UAE에서 귀국한 후 현재까지 저는 특허심판원에서 심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015년 도입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로 인하여 이제 국내 제약업체들도 특허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심판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특허청 국·과장, 특허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로스쿨 교수, 변호사, 변리사로 구성된 한국특허법학회 회장을 맡아서 '2018 TOP10 특허판례' 세미나와 '의약의 용도발명'에 대한 공개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대학시절 중앙대 사진반 총무로 활동하고, 약협(서울시내 8개 약대연합 농활 서클) 섭외부장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제 모습을 기억하는 친구들은 제가 물어보곤 합니다. “너는 약

국이나 사업을 해서 돈을 벌 줄 알았는데. 무슨 생각으로 공직생활을 30년 넘게 했니?” 저 또한 저 자신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어쩌다 32년을 하셨는가?”

지난 32년의 공직생활을 돌이켜보면, 정말 100미터 달리 기 하는 것처럼 열심히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저도 마음으로 공감하고 몽클했던 장면인데, 영화 ‘국제시장’의 마지막 장면에서 덕수 역을 맡은 배우 황정민이 빛바랜 아버지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독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예. 이만하면 내 잘살았지예.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예.”

32년 전 처음 공무원을 시작할 때 저는, 특허청 고위공무원으로서 우리나라 의약특허에 관한 최고위직이라는 현재의 제 모습을 목표로 정하고 필요한 것들을 계획하고 실행해왔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 32년 동안 저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하여 일을 하였고, 그러한 순간들이 쌓여서 현재의 제 모습이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특허청에는 중앙대 약대 출신 심사관이 저를 빼고도 3명이 있습니다. 충분히 도전할만한 가치고 있고 매력 있는 곳입니다. 용기 있는 후배들의 도전을 기꺼이 응원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몇 년 뒤에는 공직을 떠나 특허법을 사무소에서 변리사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때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열심히 달리고 있을 저 자신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약사 3대의 꿈 “나누는 삶”

임상목(중앙대약대 60학번)
 임기민(중앙대약대 88학번)
 임진성(아주대약대 17학번)

편집위원회

“제가 아버지보다 높아졌어요!”
 최근 중앙대 약대 동문회 22대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부회장 겸 사무부총장으로 임명된 아들 임기민(36회) 약사의 말에 14대 동문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고문으로 있는 아버지 임상목(8회) 약사가 할 말을 잊아 올해 아주대 약대에 입학하면서 약사 3대의 퍼즐을 맞춘 손자 임진성 예비약사가 빙그레 웃음을 지었다.

아들 임기민 약사는 기초과학자나 수학자가 되고 싶었다. 그러나 아버지 눈에는 언젠가 초등학교 시절 흑시 같이 맞받아치면 상대가 아플까봐 일방적으로 맞고 들어왔다는 아들의 품성이며 성격이 흰히 보여 약사가 되기에 적합하다고 이미 결론을 내린 터. 사모님과 합동작전으로 거의 반강제적으로 약대 진학을 권유했다. 중앙대 약대 입학시험을 보는 날 그 큰 키에 고개를 꼭 숙이고 나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미안한 마음에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는데, 당시 모교 학장이셨던 이광표 교수님의 합격 확인 전화를 받고 느낀 안도감과 감사함이란!

약국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한 손자 임기민 예비약사는 방과 후 대부분의 시간을 약국을 놀이터 삼아 지내다 보니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당연히 약사가 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런 삶의 방식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임상목(중앙대약대 60학번)-임기민(중앙대약대 88학번)-임진성(아주대약대 17학번)으로 이어지는 약사 3대의 꿈을 설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사족을 붙이자면 임기민 약사는 당시 숙명여대 약대와 연합서클이던 약수회 활동을 하면서 부인 연재열 약사를 만나면서 약대 진학에 대한 불평불만이 싹 들어갔다는 아버지의 생생한 증언이 있었다.

‘친절한 약국’을 모토로
 당시만 해도 사회적으로 안정되지 못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었던 시절, 임상목 약사는 ‘후대에 이런 어려움을 물려주지 말자’는 소박한 심정으로 중앙대 약대에 입학했고, 학창생활을 통해 의외로 적성에도 맞고 해서 ROTC를 병행하면서도 큰 어려움 없이 졸업을 할 수 있었다. 군대를 마치고 조금 쉬다가 1967년 김승호 사장이 보령약국을 기반으로 10명 남짓의 직원들과 함께 보령제약을 창



업할 때 창립 멤버로 참여하여 2년 정도를 근무했다. 중구 담당자로 열심히 뛰어다니다 뜻한바 있어 1969년 은평구에서 친구가 운영하던 약국을 인수하여 프린스약국을 개업하여 약사가 천직이라는 소명을 하루도 잊은 적 없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지금은 원래 개업했던 약국의 지근거리에서 아들은 세계로약국을, 본인은 온누리 불광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그때의 사정은 열악하여 아침 6시에 약국 문을 열어서 밤 12시까지 꼬박 근무하던 시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국 매출은 회사에서 받던 월급(1969년 당시 128,000원 가량)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몸은 힘들고 수입은 신통찮은 어려움을 감내해야 했다.

이대로 안주하기에는 자존심이 허락지 않았고 며칠을 고민하다 '친절한 약국'이란 컨셉으로 승부를 걸기로 굳게 마음을 먹었다. 코흘리개의 코를 닦아주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약국의 본령인 마진이 많은 약이 아니라 환자에게 꼭 필요한 약, 가격 대비 효능이 뛰어난 약을 권하는 것을 생활화하자 몇 달 후부터 주민들의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후 움직일 수 없는 약국경영의 모토가 되었다.

‘중앙대 약대 출신 약사’가 든든한 백

약국 운영에 자신감이 생기자 활동의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무한대로 확장되었다. 좀 더 주민 친화적으로 가자

는 봉사의 정신으로 동네 방범위원회 활동을 시작하여 얼마 후 위원장이 되었고, 1991년 은평경찰서가 새로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방범자문위원회 회장으로 선임되는 선순환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당시로선 열악하기 짝이 없던 노인정의 현상이 눈에 들어왔고, 여름이면 수박을 비롯한 과일을, 겨울이면 연탄을 들여놓았고, 명절에는 금일봉을 잇는 법이 없자 노인들이 앞장서서 든든한 우군이자 후원세력을 자처, 앞장서서 입소문을 내는 바람에 약국이 문전성시를 이루기도 했다.

이 인연은 정치라곤 관심이 없던 생활인에게 1991년 우리나라 최초로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면서 구의회 의원에 출마하라는 주민들의 성화로 이어졌다. 관내 5개 노인정을 중심으로 노인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업고 선거운동이 자발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지역주민 중 약대가 아닌 중앙대 타과 출신 동문들의 십시일반 지원까지 이어지며 생각지도 않게 전국 최다득표 1위의 영예를 안고 지역지인 은평신문에 1면 전체를 얼굴로 도배를 하기도 했다. 이런 영향으로 구의원 38명 중에서 부의장 지명을 받았고, 활동이 이어지며 중구에는 의장으로 봉사의 삶을 이어갈 수 있었다

의장자격으로 자매결연을 위해 미국 LA를 방문했을 때 지역에 소개가 되었고, 그걸 보고 졸업 후 거의 소식을 모르고 지냈던 여자동기가 새삼 전화를 해 와서 반갑게 해후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여기서 한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하자면 선거 전략의 중요한 일환으로 후보자 팸플릿에 '중앙대 약대 졸업'이라는 문구를 최대한 크게 확대하여 눈에 띄게 배치를 한 효과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는 당시 중앙대 약대의 위상이 국내 다른 어떤 대학에 비해 조금도 떨어지지 않던 자부심으로 평생을 봉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것에 힘입은 바 컸다. 그때는 중앙대학교 단과대학별로 뺏지 색 같이 달랐던 시절인데, 빨간색의 약대 뺏지를 달고 가슴을 쪽 펴고 다니던 생각이 어찌 나지 않겠는가. 입시철 방송에서 전국 대학교 입학시험 경쟁률 1위 중앙대 약대라는 멘트가 나오던 것이 지금도 기억난다.

약사로서, 방법위원회나 노인정 봉사와 같은 사회활동과 그 인연으로 이어진 구의회 활동 등의 이면에 늘 중앙대 약대 출신 약사라는 후광이 든든한 뒷배경이 되어준 것임을 한 시도 잊은 적이 없다.

자유총연맹 은평지회장으로 활동시 전국 150만명의 회원을 대표하는 5명에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구의회를 은퇴할 시점에 구청장의 간청으로 당시 새로 출범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봉직하기도 하면서 약사의 위상을 한껏 드높이면서 공직활동 등 대외활동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은 큰 행운이었다.

제일 큰 보람은 300회 이상의 주례

약국에서 약사로서, 또한 지역사회의 공복으로 활동하면서 적지 않은 보람과 희열을 느끼기도 했지만,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무어냐고 묻는다면 단연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300회 이상의 주례를 섰던 일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1991년 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자마자 첫 주례 의뢰가 들어왔고, 당연히 걱정이 앞서 일부러 예식장을 찾아가 분위기를 익히는 등 나름대로의 준비를 했다. 당시 홍익대 부근에 있던 경남예식장에서 정신없이 주례를 마치고 약국으로 복귀하자 책상에 사례금이 든 봉투가 기다리고 있었다.

하루 저녁을 꼬박 고민하며 마음을 정리한 결과 “보잘 것 없는 나에게 주례를 의뢰해 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더군다나 내가 봉사하기로 한 바로 우리 지역주민에게 사례금을 받는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다음날 새벽 일어나자마자 연락을 해서 돌려받을 수 없다, 그럴 수 없다는 실랑이 끝에 결국은 주례를 부탁한 측에서 고집을 인정해 준 것이다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자 지역사회에서 주례에 따른 사례비를 받지 않는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각인되었고, 다만 아주 섭섭하지 않게 와이셔츠나 넥타이, 과일 등을 고맷게 받아 당시로서는 자연스럽게 인연의 따스함까지 무시하지는 않았다. 거리를 지나가다 기억에도 없는 젊은이가 그때 주



인터뷰

레 서주셔서 잘 살고 있다는 인사를 해오곤 하는데, 그 이상의 사례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수 많았던 주례의 백미는 오전 10시 남산 야외공원,

12시 홍제동 미미예식장, 그리고 오후 2시 진관동 문화예식장을 차례로 순방하며 2시간 간격으로 하루에 3회 주례를 선 것이 어찌면 기록이라면 기록이 되지 않을까 싶다.

지금 생각해도 스스로에게 기특한 것은 당시 경제적으로 크게 넉넉하지 않던 시절, 관례적으로 받던 봉투 속의 적지 않은 사례금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인 상황에서 어떻게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고, 초지일관 지켜서 단 한 번도 사례를 받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

소홀히 할 수 없는 약사로서의 삶

이런 대외활동의 밑바탕에는 당연히 약국을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약사로서의 삶이 자리 잡고 있다. 은평구약사회 분회장에 당선되던 때는 은평구 관내에서 서울대, 성대, 중앙대의 세가 큰 3개 대학이 치열하게 치고받고 싸우던 시절이었는데, 왕성하게 대외활동을 하며 약사사회의 위상을 드높인 공로를 인정했음인지 경선 없이 회장으로 추대되어 단합을 대내외에 과시했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 당시의 다방면적인 사회활동을 통해서 다져진 인맥이며 네트워크를 심분 이용하여 약사감시며 약화사고 등 크고 작은 현안 문제가 발생하면 보건소나 경찰서와 충분히 의견교환을 하고 납득시켜 문제를 풀어나가던 기억이 생생하다. “당시에는 약국하기가 편했다”는 이야기야말로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오랜 세월 나름대로의 활동을 인정받았음인지 대한약사회 금장이며 약연상 등을 수상한 기억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온 내 삶의 이력이 되리라.

이런 현실을 목도하면서 이후 기회가 닿은 대로 후배들이며 약사사회에 고언을 했다. 지역주민을 위해 약국을 운영하는 것이 당연히 우리 약사들의 부정할 수 없는 1차 목표가 되어야 하지만, 때로는 약국의 울타리를 벗어나 공직을 비롯하여 다른 대외활동에 뛰어드는 것도 약사의 사회적 인식을 드높이고 약사사회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커다란 도

움이 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시간이 남아서 대외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없는 시간을 쪼개서 나와 내 주변의 작은 커뮤니티에 갇혀있지 말고 더 큰 세상, 더 큰 명분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도처에 널려 있다. 우리 약사사회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적극적인 대외활동이 생각보다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재삼재사 강조하고 싶다.

중앙대 약대 14대 동문회장으로 임원진과 동고동락하며 학교 발전을 위해 몸담았던 시절도 당연히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즐겁게 일했던 기억이 난다. 임기가 종료될 즈음 캄보디아 앙코르와트를 방문해서 겪어보지 못한 덥고 습한 날씨에 고생하던 일이나, 너무 더워 땀 닦느라 연신 호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다 넣었다 하는 와중에 언제 떨어졌는지도 모르는 여권을 주워 달려와 준 까만 눈동자의 아이 모습도 잊을 수 없다. 몇 푼 안 되는 기념품을 사주는 했지만, 지금은 기대할 수 없는 순박한 정서의 기억이 따뜻하다.

우리 8기 동기들 중에는 이름대면 알만한 훌륭한 동기들이 넘쳐 나지만, 못난 소나무가 선산을 지킨다고 별 재주가 없는 몸이 거의 20년간 동기회장을 역임했다. 당시 230명 정도가 졸업해서 현재 180명 정도가 연락이 닿으니 그래도 건강관리를 잘 하며 살고 있구나 치부하고 있다.

사람과의 유대가 중요하다

외견상 이만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아온 것이 아니냐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우리 인생이란 것이 어찌 그럴까? 약국에서 간혹 부딪치는 진상고객은 물론이고 구의원으로서 재직할 때 온갖 민원인들의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이 어찌 순탄하게 처리되지만 했을까? “내가 이런 험한 꼴 당하려고 이 고생을 했나”라는 푸념이 터져 나온 것이 비단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어언 약국 생활이 50년, 긴 세월 속에 어려움과 보람이 교차하면서 얻은 교훈은 절대로 남에게 나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자각이다.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경우에 따라서 언젠가는 필요로 해지는 순간이 있고 도움이 되는 순간이 오게 마련이다. 평상시 원만한 유대관계가 중요하다.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 아닌 이상 화도 나고 견딜 수 없는 모욕감에 치가 떨릴 수도 있지만, 나이 들어 생각해 보면 대인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그것이 순리다.

이런 연장선 상에서 아이들에게 싫은 소리, 욕 한 번 할 일

이 없었음은 스스로에게도 감사하다. 하물며 손자에게 있어서야 더 이상 말할 게 없다. 이런저런 핑계로 뭔가 새로운 일에 뛰어들라치면 세상사는 순리와 명징한 원칙에 의거해 말리는 쪽을 택하는 집사람도 일단 어떤 명분으로든 내가 결정을 하는 순간 다른 누구보다 절대적인 지지자로 돌변하여 앞장 서준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 힘이, 가족의 사랑이 힘든 일에도 지치지 않고, 때로 교만해 질 수도 있는 마음을 평상심으로 돌려놓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했음을 고백해야겠다. 가족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궤적이 과히 틀리지 않았다는 자부심과 버무려 내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 나갈 일만 남아있다. 그래서 오늘도 삶의 터전인 약국으로 출근을 하는 것이다.

신석기 시대(?)에나 쓰던 현미경이 아직도

한 가지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동문회장으로 학교를 자주 드나들던 시절, 언젠가 한 번 학교 이곳저곳을 둘러보다 우리가 다니던 학창시절에 썼던 바로 그 현미경이 눈에 딱 들

어오는 것이었다. 기가 막힐 일이었다.

그 무렵 임영신 총장의 약대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기대로 어렵게 기부 받은 파이프홀 건립자금을 그대로 쏟아 부어 당시로서는 최신의 연구 기자재를 갖춘, 그야말로 선망의 대상이 되는 약대를 만든 것이다.

사회에서는 중앙대 약대에 무조건 엄지손가락을 높이 치켜 세워주던 시절, 자부심으로 더욱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던 분위기에 비추어 볼 때 작금의 현실은 가히 충격적인 상황이 아니었겠는가?

물론 동문들의 애정 어린 발전기금 기부에 힘입어 지금의 약학관이 위풍당당하게 서 있지만, 불과 수년 전의 그 '꿈직한' 기억이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누구 탓을 하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학생은 학생대로, 교수는 교수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그리고 동문회는 동문회대로 따로 해야 할 일과 같이 해야 할 일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차근차근 해 나가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한다. 중앙대 약대의 위상을 되찾는 일에 너와 나의 구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인생의 롤 모델이 가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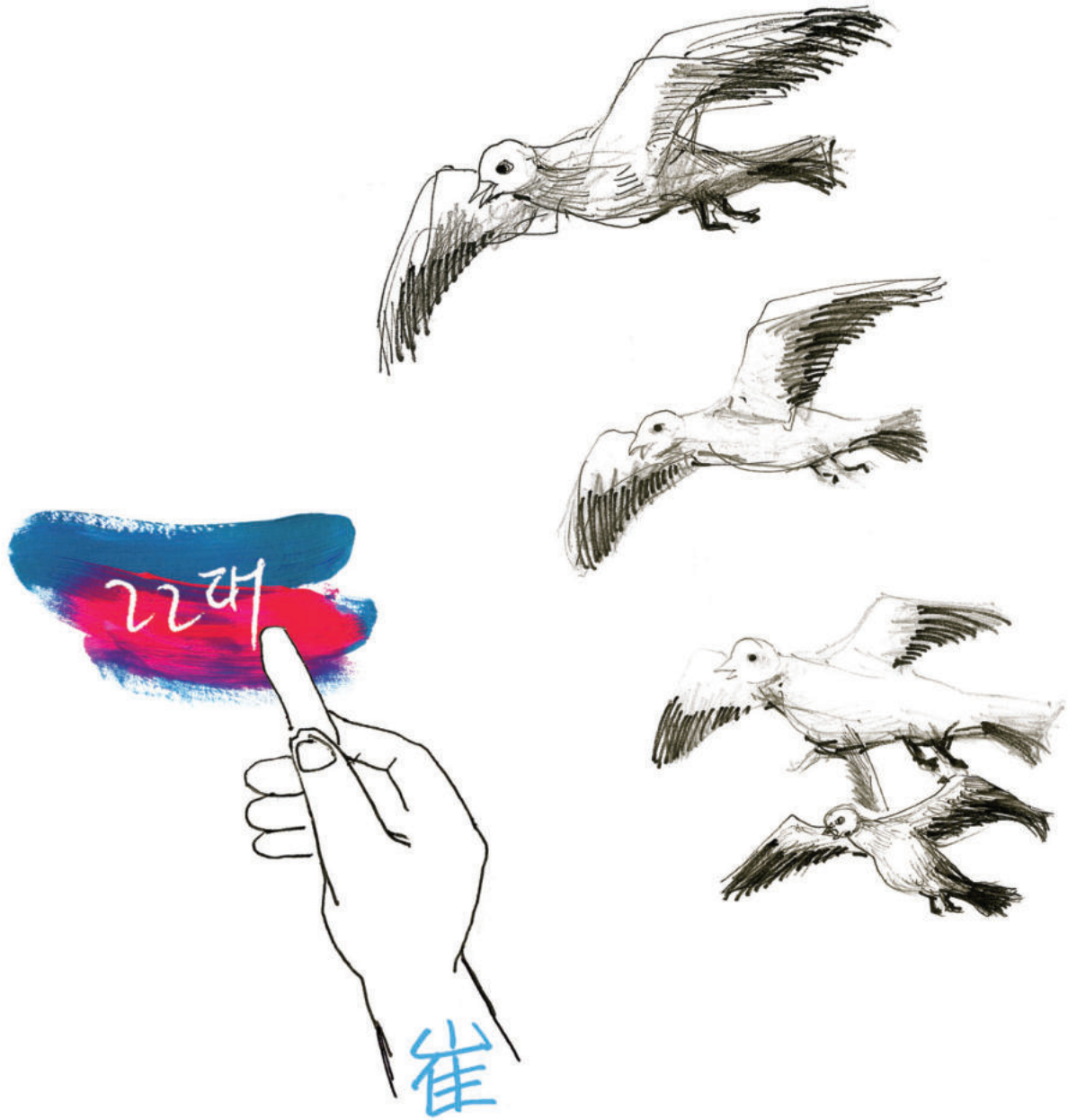
인터뷰가 끝나고 아들인 임지민 약사에게 아버지가 약사와 대외활동이라는 큰 길을 가며 바쁘게 살아오신 터라 혹여 가족들에게 소홀하거나 해서 마음 상한 적은 없느냐고 직설적으로 물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명확한 답변이 돌아왔다.

"기억에 남는 것은 늘 여러 가지 일로 바쁘셨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며 같은 길을 가는 약사가 될 생각은 솔직히 없었다. 그러나 당신의 입을 통해 들은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에게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아버지가 어느 정도로 크게 인정받고 있는지, 신망이 얼마나 두터운지를 반복해서 들으며 좁은 소견으로 잘 보지 못했던 진면목을 조금씩 알게 되었다. 이후 실생활에서 같은 약사의 길을 걸으며 직접 부딪쳐보니 아버지의 그림자가 더욱 크게 느껴지는 것

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고 주눅들 필요는 없을 것이다. 아버지는 당신의 길을 개척하셨고, 나는 내 의지대로 현 상황에서 나의 갈 길을 가면 되는 것이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깨우쳐 가며, 당신께서 그리셨던 나눔의 삶을 이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인생의 롤 모델이 지근거리에 있는 나야말로 행운아가 아니가 싶다."





같은 곳을
바라 봅니다.



김기명(18회)
편집위원장

이도익 교수 정년퇴임



모교에서 면역학을 담당하던 이도익(23회) 교수가 2019년 8월 31일 정년퇴임 했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후 일본 동경대학 약학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교수는 1988년 모교에 시간강사로 부임한 이래 1989년 조교수로 임용되어 약학대학장, 의약식품대학원장 등을 역임 하며 30년간 재직했다. 약대 커리큘럼에 없던 면역학 분야를 도입하여 기틀을 다지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최근까지 강의와 연구를 통해 후학들을 지도해 왔다.

임중흥 동문 발전기금 기부

지난 7월 9일 모교 학장실에서 임중흥(7회) 동문이 약학대학 발전기금으로 1000만원을 기부했다. “전쟁 때 다리를 다쳐 좌절감에 절망했으나 공부로 이겨내겠다는 의지로 중앙대 약대를 나와 지금까지 당당하게 살 수 있었다”는 임동문은 평생 간직 하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작게나마 기부를 결심했고, 모교가 예전의 명성을 되찾는데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는 당부와 함께 발전기금을 회사했다.



6월 27일 성북동문회 모임



7월 4일 강승조(3회) 동문 방문 (주이글벳 대표이사)



7월 6일 동작동문회 모임



7월 18일 강서동문회 모임



7월 18일 부천동문회 모임



7월 19일 안산동문회 모임

동문 한 사람의 작은 정성이 큰 동문회를 만듭니다.
회비납부, 의무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2018회계년도 회비내역

2018년 5월 ~ 2019년 6월

회장단회비

600,000원

21회	홍종오, 김수배, 김종효, 김진자, 노재하, 백운경 양주석, 이상일, 이승호, 조형래, 최병철, 한성희 한상윤	27회	곽나윤, 김정호, 박영달, 이원일
22회	강희윤, 김인선, 김태일, 김홍진, 박동우, 유대식 이준상, 이영욱, 천경호, 최광훈	28회	구영삼, 김영희, 김희식, 양덕숙, 이영주, 이해룡 장원규
23회	권석형, 김수중, 박종화	29회	김은진, 류형준, 이상수
24회	이광섭, 이규삼, 이범도, 함삼균	30회	김광식, 윤미숙, 이장무, 최병원
25회	문태화, 이광인, 이현수, 최두주	32회	조양연
26회	김정수A, 박정래, 반수호, 유영한, 최민규, 한갑현	34회	신수민, 한일권
		35회	임중식
		36회	임기민

이사회비

150,000원

1회	손동헌	22회	손의동, 오황영, 이명옥, 이현희, 이정석, 전철호 한만영
2회	황재수	23회	김영출, 박상진, 박희용, 임준석, 홍순욱
3회	강승조, 손석우, 이병균	24회	임무호, 장규옥, 함한성
4회	이창우	25회	고성권, 김희섭, 이완희
6회	박정배, 신정숙, 안병한, 안인혁, 유관열, 유상열	26회	윤광중, 이종량, 진희억
7회	김정부, 박명신, 서명규, 이기안, 정재일, 정조원	27회	김영후, 박수길, 변옥희, 오순용, 오애영, 윤영한 최총식, 한봉길, 현기원
8회	김희영, 박번일, 이상묵, 조의환, 한석원, 김연희	28회	신영무, 양창국, 이병천, 이영주
9회	권혁구, 김영빈, 김홍래, 이규진, 이근배	29회	김은진, 김인혜, 유종운, 이종옥, 한일룡
10회	박호일, 변도문, 방순환, 이홍수, 유정사	30회	김연하, 김해승, 김혜수, 김현학, 도민숙, 최병태 홍성광
11회	고승하, 김미자, 김창중, 박찬희, 황공용	31회	오대근, 오세정, 이미자, 이정우
12회	남기탁, 노덕재, 심재웅, 염윤기, 이관하, 이성우 조택상	32회	안광열, 정영복, 이경우
13회	구연홍, 문재빈, 박동규, 서국진, 안병식, 윤해선 이종각, 이상길, 최창엽	33회	이정수
14회	구종모, 김동원, 김명웅, 김윤국, 양인승	34회	김보원, 전형수, 한일권
15회	조찬휘	35회	강익식, 양윤정, 서유정
16회	백승복, 이은솔, 최창원	36회	우경아
17회	김성지, 신상직, 선우영환, 양희익, 이동우, 이완철 장재인	38회	이재훈, 임향숙, 최은영
18회	강응모, 김기명, 정명진, 조중형	39회	이정근
19회	김경오, 안병호, 윤건섭, 이경옥	40회	이태상
20회	구장림, 김현태, 김홍진, 류화승, 문주기, 배성진 이극선, 이상일, 이영희, 이호선, 임구래, 임경원 정찬현, 조진환, 최석중	41회	최명수
21회	김대일, 고영근, 오홍설, 안병헌, 한찬수	42회	정동만
		51회	김홍진
		60회	김태수

일반회비		30,000원
11회	김철홍, 김학진, 남복석, 서세양, 송상부, 장헌소 허정범	29회 권혁자, 민희정, 심미선, 사철기, 안형준, 이경근 이강현, 장병곤, 장승학, 장우성, 한규인
12회	강창희, 김대건, 김미영, 김신우, 김일영, 문혜성 박흥식, 심재창, 오형철, 우홍길, 이만오, 이순우 이연수, 이정희, 이종화, 정용오, 최덕구, 최복자 최승은, 최창묵, 한옥규	30회 강성희, 강형숙, 고은숙, 김선겸, 김영희, 김용규 라미숙, 문미례, 서정봉, 송정숙, 손은실, 윤기숙 이소영, 이호일, 전기남, 조순연, 조민숙, 최정진 최현희, 홍염미
13회	김명중, 김석규, 김희겸, 우동진, 이우식, 조성도 최승기, 최창건	31회 구상미, 김성민, 류문숙, 송소연, 유두중, 유영숙 유인숙, 유지영, 이동익, 이영민, 이병각, 윤희정 이정희, 김미경
14회	김명수, 김인덕, 김영일, 김원순, 김종렬, 김진행 류효성, 박찬임, 상경숙, 이강련, 이병조, 이용성 이희영, 전영표, 정도연, 조병화, 채성기, 현혜경 홍성철	32회 김광복, 김미성, 김정중, 김지현, 김익수, 김현경 신은숙, 심상철, 안승희, 유완진, 윤귀숙, 육재분 이명선, 정세진, 정현삼, 채영주, 박병호
15회	김관호, 김대웅, 김용규, 김태영, 김형수, 남석우 박인호, 송현숙, 이덕노, 이인석, 정해성, 진총렬 황인영	33회 김영재, 김정태, 박재홍, 박해석, 소정우, 임희원 윤종배, 이보형, 이종탁, 최현정
16회	권희문, 김광길, 김상목, 박상환, 박종애, 박창호 신규언, 신진숙, 윤영위, 이규주, 조연심	34회 김기남, 김성현, 김용수, 김의동, 민성철, 백희숙 박상권, 성선경, 임혜숙, 이선우, 이승호, 이영은 이 준, 조형권
17회	김상집, 김환희, 이영자, 인익진, 조기남, 정갑진	35회 김성훈, 석윤진, 송은경, 우난숙, 이종만, 이화순 정문선
18회	김시동, 문형진, 양만기, 여운숙, 육득윤, 임태영 이성배, 이종학, 이훈복	36회 김진수, 박화신, 방극상, 유복진, 정현희, 홍성원
19회	고재무(고문찬), 김기성, 김동희, 김행소, 남윤수 박운홍, 배영덕, 유태일, 장명섭	37회 김찬배, 박재형, 서보연, 임성주, 오상희, 전상인 정성엽
20회	김영식, 김종갑, 김평자, 남덕자, 방금숙, 서기수 송열호, 윤춘수, 이광영, 이재형, 이차웅, 정동천 정영주, 정금순, 정혜영	38회 김병욱, 박종일, 성치순, 윤광식, 이명희, 함혜지
21회	강성무, 김길주, 김구영, 김동연, 김동학, 김병무 김용주, 류승률, 백기홍, 신길덕, 이기복, 이두순 이만형, 이병규, 임정환, 정재일, 장창만, 조 복 조홍윤, 한태식	39회 김학순, 박성훈, 방근철, 한은경
22회	김인선, 박동우, 오기환, 이운섭, 양희복, 장상대 정태화, 천경호	40회 김승혜, 김지연, 이필상, 장미라, 장정수, 황선영 홍기연
23회	나용태, 송명숙, 임창영, 이원길	41회 구영준, 김홍주, 박영진, 신유미, 이호섭, 장산옥 최현진
24회	김기환, 김정무, 박관수, 신용철, 오동근, 오세홍 원경선, 이형수, 임철빈, 임형균, 정상수, 함기철 황규진	42회 민명기, 박소영, 이창경
25회	김두수, 김선열, 김완기, 김재역, 김창현, 손현우 위성건, 이동규, 이승정, 이수영, 이영제, 임흥기 조경래	43회 남주영, 박성남
26회	김기형, 김봉일, 김윤수, 김정수B, 김태원, 라종우 박주돈, 신현동, 안철종, 양승훈, 오승주, 이강욱 이기평, 이순아, 이윤일, 최옥숙	44회 고정봉, 문상희, 정의찬
27회	김창식, 유기조, 이연숙, 이정아, 전명수, 조광호 한규정	45회 고기현, 김지하, 박성희, 신미순
28회	기병서, 문현미, 유정수, 이석원, 이은선, 조효금 한성호	46회 김지연, 장수정
		47회 박인선, 신현주, 이승민
		49회 이선혜, 서효진, 정주호
		50회 우종식
		51회 김보견, 박경태, 송호선, 유은걸, 정주철
		52회 신은경
		53회 김혜지
		54회 이윤정
		55회 김성태, 장자윤
		60회 변성민
		61회 김승민, 박진솔, 양대형, 엄성준, 이기철,
		62회 김예슬, 서유미, 인정렬, 우건희, 이희주, 정민경 박현수

2019-1학기 약학대학 동문회장학금 수혜자



번호	장학금명	장학금액(원)	전공	성명
1	본동문회	1,000,000	약학과	이혜원
2	본동문회	1,000,000	약학과	류시현
3	본동문회	2,250,000	제약학과	민혜원
4	본동문회	2,250,000	제약학과	송우길
5	본동문회	2,250,000	제약학과	박종현
6	본동문회	1,000,000	제약학과	우유림
7	본동문회	1,000,000	제약학과	주동규
8	본동문회	1,000,000	제약학과	박창국
9	본동문회	2,250,000	약학과	김현성
10	본동문회	1,000,000	약학과	신성우
11	본동문회	1,000,000	제약학과	송우석
12	본동문회	1,000,000	제약학과	강지선
13	본동문회	1,000,000	제약학과	홍주현
14	본동문회	1,000,000	제약학과	정치환
15	본동문회(청호)	1,000,000	약학과	김재천
16	본동문회(김명섭)	1,000,000	제약학과	박수진
17	여동문회	1,000,000	약학과	황윤정

번호	장학금명	장학금액(원)	전공	성명
18	생약반동문회	1,000,000	약학과	이용민
19	생약반동문회	1,000,000	약학과	김정윤
20	약제반동문회	1,000,000	약학과	이기범
21	약제반동문회	1,000,000	약학과	김찬양
22	26회 동기회	1,000,000	약학과	박재영
23	26회 동기회	1,000,000	제약학과	강민수
24	약품물리반	1,000,000	약학과	오동하
25	약품물리반	1,000,000	약학과	정채원
26	병태생리학교실장학회	1,000,000	약학과	김혜진
27	병태생리학교실장학회	1,000,000	제약학과	김유경
28	병태생리학교실장학회	2,000,000	대학원(약학)	이왕태
29	생체방어조절연구실	1,000,000	약학과	양종훈
30	28회 동기회	1,000,000	제약학과	이보미
31	안산동문회	1,000,000	약학과	이동준
32	부산동문회	1,000,000	제약학과	강유나
33	안양동문회	1,000,000	제약학과	박유빈
34	천안동문회	1,000,000	제약학과	강영우
합 계		40,000,000		

김기명(18회)
편집위원장

나는 약국을 접었습니다. 직업에 대한 미련도 있었지만, 지금 부터 10년후,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늘 '내일을 위하여' 달려 왔습니다. 그런데 그 '위한다는' 그날이 오늘인데 '나은 오늘'이 아니라 그냥 '내일로 가는 길목'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선택의 오늘을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웬만하면 되돌아오지 않으려 합니다. 늙음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삶의 완성으로 가는 과정 이라는 확신을 가지려 합니다. 오늘을 즐기는 친구들이 되시길^^

「동기방에 올린 친구 중학군의 글」

박희웅(23회)
편집위원

하기휴가시 가족들과 아프리카 여행을 다녀온 지인이 루이보스티 한 편을 선물했다. 아프리카라니! 아재 개그는 아니지만 우리가 결혼할 당시는 여행자유화 이전이라 신혼여행은 제주도가 으뜸이요, 경주가 버금가던 시절, 그나마 제주도는 아껴두었다가 나중에 기회되면 가자고 집사람 설득하여 강릉쪽으로 향했었다. 마음만 먹으면 세상 어디인들 못갈 곳이 없는 세상이지만 지리부도에서나 보던 아프리카를 배낭여행도 아니고 가족들과 다녀왔다니 느낌이 없을 수 없다. 국경의 의미가 현저하게 퇴색된 지금, 불과 몇년 전만해도 형님 노릇할 위치에 있던 큰 나라들 중심으로 웬 또라이들이 한꺼번에 나타나 분탕질을 치는 아이러니라니!

최두주(25회)
편집위원

일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열심히 일할 의지를 가진 우리 동문회 신임 사무총장입니다.

지난 27일 신임 집행부를 맡고나서 처음 개최된 초도이사회에는 예상외로 70여명의 동문 선후배님들이 참석하셔서 원래 준비한 좌석이 모자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 열기만큼 활발한 의견개진이 이루어지기도 했지요.

이 모든 것은 그만큼 신임 집행부에 거는 기대가 크고, 열심히 일한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줄 마음이 있다는 애정어린 시각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정말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자각으로 출발합니다.



김아랑 **쇼트트랙 금메달 리스트**
텐텐 먹고
건강하게
잘 썩었다!



성장기, 허약체질 어린이의
성장·발육에 **텐텐**®
추정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잘 견디며, 피부 자극, 발진, 고열, 구토, 이차 감염, 알레르기 반응, 과다 복용 시 209-4489-00000

엄마의
마음으로
후~

낳을 때도

키울 때도

기뻐할 때도

모든 순간

상처 없이 키우고 싶은

엄마의 마음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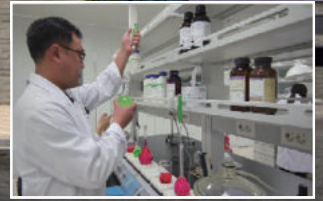
상처엔 후~ 후시딘



Total Animal Healthcare & Nutrition Company

EAGLE VET

대한민국 동물약품업계 최초 **EU-GMP인증**을 받은
우수한 품질력을 바탕으로 유럽시장 진출에 도전하겠습니다.



대표이사 회장 강승조(약학55) / 사장 강태성(축산 87)
동문직원 임성식(독문 84), 손예훈(동물생명공학 11), 임소희(동물생명공학 13)

gather **now** go!



반려동물을 위한 캐나다산 **고품질 프리미엄** 사료

우리 집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에게 이글벳에서
수입한 **균형잡힌 영양사료**를 먹여보세요.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동문들에게는 **언제든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사료 구입 전, 샘플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우측 QR코드를 촬영해 보세요!**

- ▶ **샘플 신청하기** : QR코드 촬영 > 회원가입 > 샘플신청 (3종 선택)
- ▶ **할인 혜택받기** : QR코드 촬영 > 회원가입 > 마이페이지 > 혜택관리 > 쿠폰등록 (할인코드:CAU4402278)



샘플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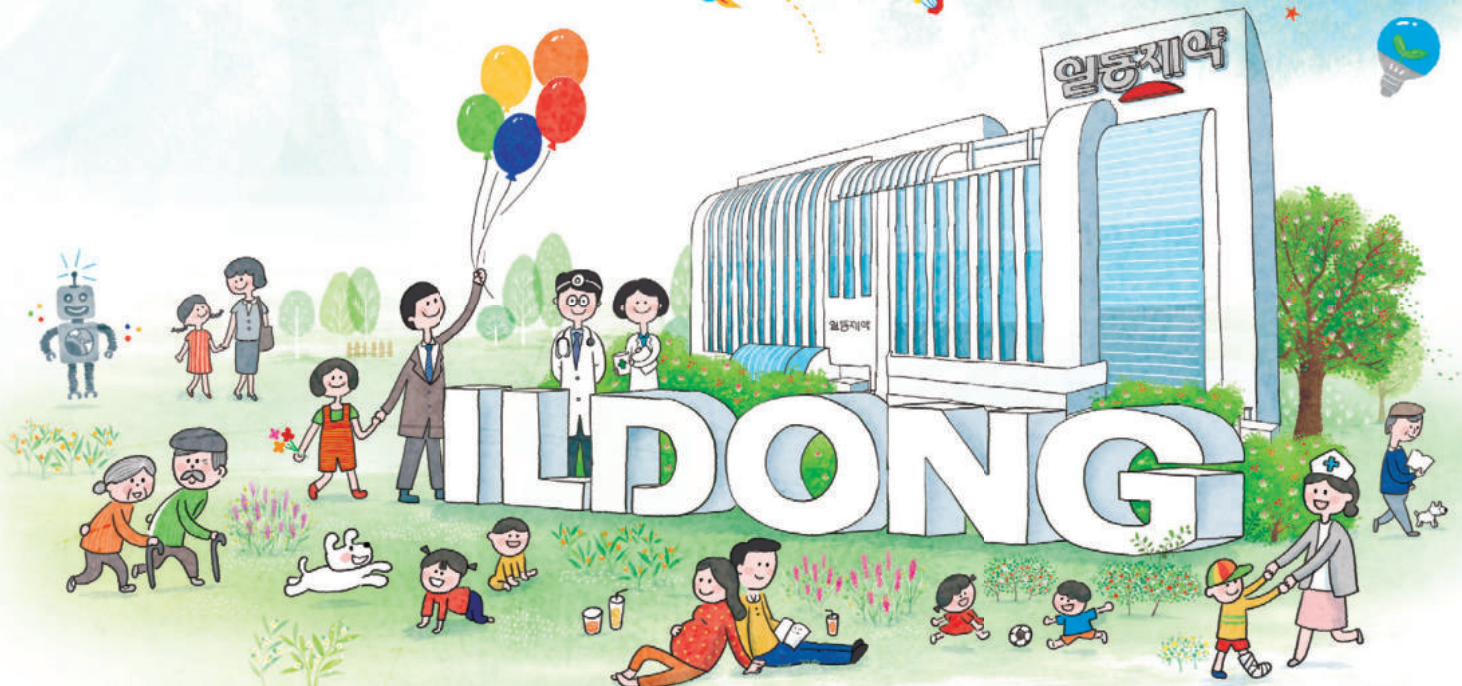
할인 혜택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6길 20, 이글타운 8층(04796) | 대표전화. 02-464-2031 | 인스타그램. @eaglevetpet
동물약품 홈페이지. www.eaglevet.com | CA 홈페이지. www.eaglevet.co.kr | 공식 쇼핑몰. www.eaglepetshop.com

국민건강연구소 일동제약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
오직 건강 한 길만 걸어온 일동제약-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더 큰 믿음과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경영지수 선도그룹



제9회 대한민국 브랜드대상 최우수상



2018년 글로벌스탠더드경영대상 품질경영부문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610호-1

전화 02-565-1700 팩스 02-564-1701 홈페이지 www.caupharm.or.kr 이메일 capa21@hanafos.com